



Be Alive. Be Yourself.

**To connect the world
through Sound**

세상은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스푼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연결 시켜주는 새로운 힘이 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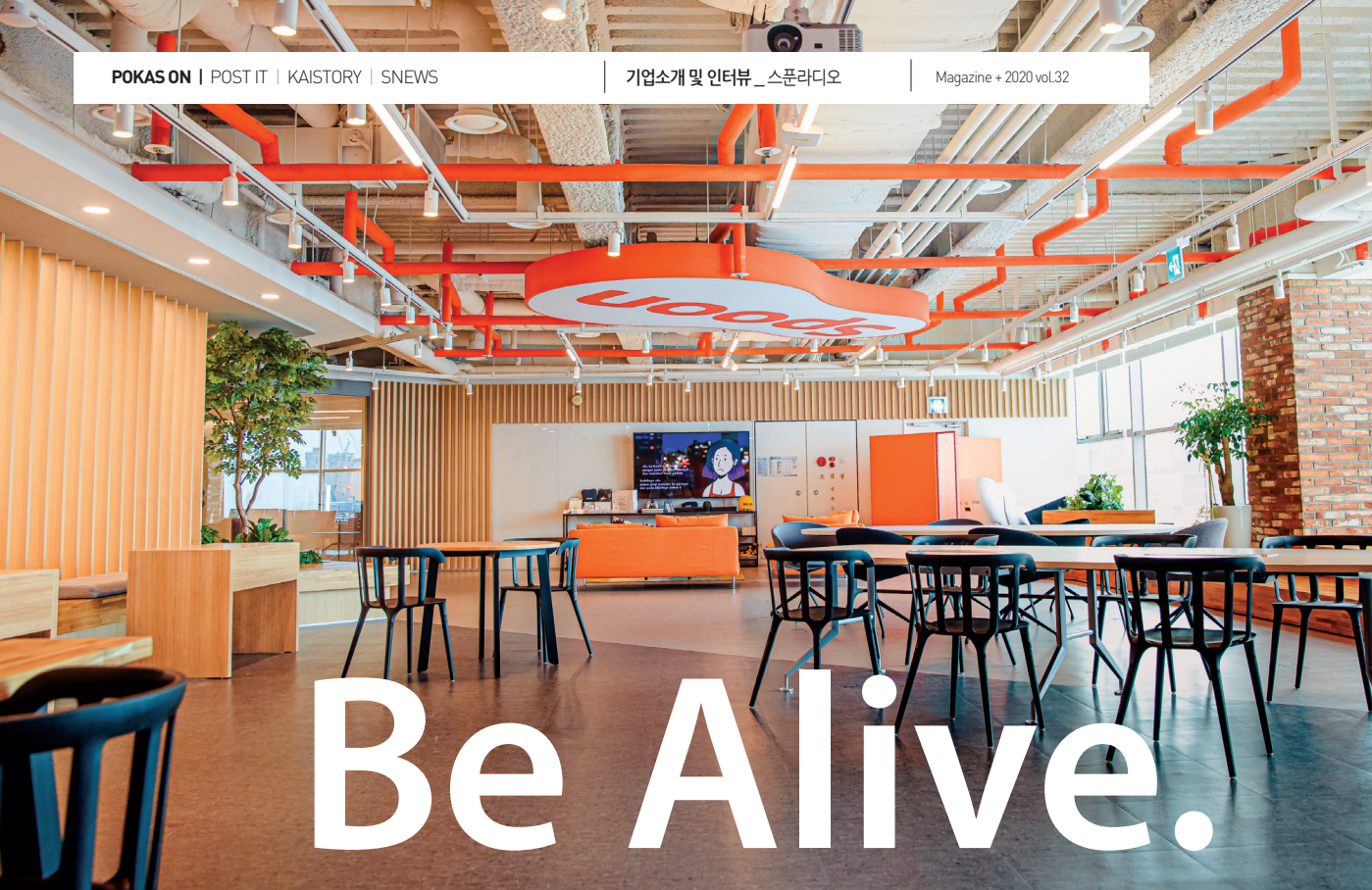


Be Alive. Be Yourself.

**To be a community of
meaningful connections
and amplified voices**

사람들은 '나를 닮은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싶어합니다.

스폰은 나와 비슷한 사람들과 자유롭게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Be Alive.



Be You



rself.

가능성에 도전하며 새로운 경험과 가치를 만들어갑니다.

인재 ● 스폰라디오 Infra팀 김광호

스폰라디오는 To connect the world through sound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스타트업입니다.

10개 국가 6개의 Region을 사용하는 글로벌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위 슬로건을 이뤄내기 위해 프로들이 모인 회사입니다.

슬로건을 보면 알 수 있듯, 우리는 DJ의 목소리를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실시간 라디오 방송을 하는 회사입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대학원생들에게 소개해 주신다면?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6개의 Region에서 AWS Cloud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국가엔 각각의 서비스가 존재하고 그 안에 각각의 Database가 존재합니다. 저는 그 Database를 관리하는 DBA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DBA는 Database health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Parameter tuning, Query tuning, Monitoring, Analysis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내 스터디 모임 등 지속적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는지?

MSSQL의 최대 커뮤니티인 PASS 라는 커뮤니티가 있는데요, 이 커뮤니티의 한국 모임인 PASS Korea가 있습니다. 아시아에 2분밖에 없는 Data MVP도 이 커뮤니티에서 같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총 14명이며, 모두 DBA로 일을 하고 계시





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월 1회 산업 동향과 신기술, 그리고 TS 과정들을 공유합니다. 또한 업무상 발생하는 특이 사항이나 겪어 보지 못했던 경험 등을 공유하고, 같이 고민하여 해결책을 도출하고, 해결책을 도출한 과정을 공유하여 지식을 습득합니다. 모두 현역으로 일하시는 분들이라 각자의 노하우가 서로에게 큰 자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근무하시는 회사를 최종 선택하게 되신 동기는?

전에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여행사,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각각의 Database를 관리했습니다. 여행사에서는 여행에 모든 것을 하나의 DB로 관리하였고 거래소는 차트, 운영, 거래 등 각각 나눠진 Database를 관리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스푼



라디오에서 입사 제의를 받았습니니다. 면접을 보고 다수의 Database를 다수의 Region에서 관리하는 글로벌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CTO님과의 면접을 보고 매력적인 비전을 찾을 수 있어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근무하시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6개국 Database main engine version upgrade를 하였습니다. AWS에서 긴급하게 업그레이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시작하였지만, 기존에 있던 설정을 변경하고 그에 따른 Parameter group을 설정하는데 꼭 재부팅이 필요했기에 이번 업그레이드 작업에 해당 작업을 녹여서 처리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용 중인 Database에 대한 이해를 더 높일 수 있었고 결론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 이 경험을 꼽고 싶습니다.

대학원 때 연구주제와 현재 회사에서 하는 주제와의 연관이 있는지?

대학원에서 전공한 분야는 정보 보호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정보보호와 DBA 그리고 개발자를 겸하는 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정보보호를 선택하게 되었고, 전공과 겸하여 Database, Big data, AI 등 데이터 관련 수업도 많이 이수하여 지금 하는 일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연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데이터도 하나의 정보이고 이러한 데이터를 어떠한 암호화 방식으로 보호할 것인지, 그리고 서비스와 통신 하는 네트워크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ISMS 평가에도 중요한 Database 항목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등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 분야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과 그로 인하여 가장 보람을 느끼셨을 때는?

현재 현존하는 데이터의 90%는 2016년 이후에 생성된 것이고, 2025년에는 463EB의 데이터가 생성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데이터가 생성되고 있는 시점에 많은 분이 빅데이터 엔지니어로 전직을 하였고, 그로 인해 그 근간이 되는 Relational Database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에서도 근간이 되는 Row data를 관리하고 분석을 위한 OLAP 데이터를 정제하는 과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정적으로 RDB를 관리하고 Data 분석에 근간이 되는 데이터를 만들어내서 의미 있는 Insight를 만들어 낼 때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하루 일과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출근을 하면 그날에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하고, 밤새 발생했던 이벤트들을 확인합니다. 이슈가 있었다면 왜 있었는지 로그를 분석하고 그에 따라 Parameter, Query 등 Tuning을 수행합니다. 그렇게 오전이 지나가고 오후가 되면 요즘엔 새로운 MSA 구조의 Application을 회사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그 Service에 맞는 Database schema를 구성하고 그 부분에 대해 회의를 통한 의견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주중에 한번은 Security 팀과 미팅을 통해 정책을 정리하고 정리된 것을 적용하며 ISMS, ISO27001 등 보안 심사를 준비합니다.

10년 후의 모습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10년 후면 저도 이제 40대 중반에 접어들게 되고 벌써 20년 차가 넘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DBA라는 직종의 특성상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새로운 지식의 습득이 무기가 되는 직종이다 보니 10년 뒤도 새로운 버전을 분석하며 적용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빅데이터 분석도 겸해서 하는 엔



지니어가 되어있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직까진 Chief Data Officer가 우리나라에 없지만, 데이터를 관리하고 관장할 수 있는 직책을 만들어 그 자리에 오르는 것이 목표입니다.

대학원에 재학 중인 과학기술계 후배들에게 꼭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각자의 분야가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 해야 하는 것들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학기술계라는 특성상 매번 새로운 기술이 생기는 직종이라고 생각합니다. 30년을 구두만 만드시는 분을 우리는 달인 혹은 명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30년 뒤에도 명장이나 달인이 되긴 어렵습니다. 매번 새로운 기술이 생기고 그 새로운 기

술이 어찌면 시장을 선도하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로 C 언어가 개발 언어의 전부일 때 C++이 나왔고, 뒤이어 JAVA, 그리고 지금은 Python, Kotlin, Ruby 등 너무 많은 언어가 나왔습니다. 물론 현재 C로 개발하시는 개발자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대체는 이미 다른 언어로 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현재 내 주요 스킬이 있다면 그 부분에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기술에 대한 Learning curve를 두려워하지 말고 부딪혀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